

# ‘안티-축산’에 대한 대응 및 우리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제언



최윤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축산물 바로알리기 연구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축산업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온 농촌의 핵심 산업입니다. 축산업은 농촌 경제의 핵심성장 산업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무엇보다도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온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웰빙 열풍에 따른 채식주의가 확산되면서 채식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티-축산’ 운동이 국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서적과 언론에서 왜곡된 정보들을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정부와 일반 국민은 물론 농업계 내부에서도 축산물 및 축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도 없이 ‘축산물 유해론’이 만연하여 ‘국민건강 기여’라는 축산물의 최대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한 축산물 기피현상은 축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축산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전체

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인들과 학계종사자들은 이에 방관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우리 축산물의 영양·생리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티 축산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변화하는 식품시장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안티 축산 운동의 확산 및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가.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시작 및 확산

안티 축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분뇨, 목초지 사막화, 열대 삼림파괴 등에 따른 환경문제, 인간과 가축의 식량경쟁에 따른 기아문제, 밀집사육과 비인도적 사육방식에 따른 동물복지 문제, 각종 질환유발과 관련

### 혈관의 독(毒), 고기...고혈압 막는 식단은?

[이로운 몸짱, 의사들이 채식하는 이유 <3-1> 인간의 소화기관엔 채식이 적합]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 입력 : 2011.04.30 12:50 | 조회 : 9400

▼ 기사 | 소셜댓글(2) | 가 가 | 기사공유

**편집자주** 알고 먹으면 나물로도 근육을 만든다. 현미잡곡으로도 병세를 호전시킨다. 구제역, 조류독감 등 동물관 홀로 코스트는 우리의 지나친 육식이 부른 비극이다. 내가 습관을 바꾸면 자연과 사회가 달라진다. 머니투데이는 채식을 실천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모임 베지닥터스와 함께 우리 몸과 자연을 살리는 채식노하우를 전한다.



〈그림 1〉 안티-축산 기사 및 관련 서적

된 건강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안티 축산인들의 공격이 되는 주요 문제는 건강문제이며 축산물의 최대 가치가 ‘국민건강 기여’에 있다는 점에서 안티 축산 운동 및 이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건강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 가지는 우수한 영양·생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이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인식은 점차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1950년대 미국의 안셀 키즈 박사가 동물성 식품 과다섭취가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축산물 소비량이 미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웰빙의 옷을 입고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육식은 나쁘고 채식이 건강 식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국내 축산물 유해론 확산에는 언론, 축산업계, 학계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의 경우 식품이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분야라는 점을 이용하여 축산물의 위험성에 관해 과학적 고찰 없이 일부 연구결과들을 편향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비자들과 소통없는 양

적 성장만을 추구해왔던 축산업계는 책임 의식이 결여된 채 축산물의 가치에 대한 국민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티-축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계 역시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 요인으로 인해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어 왔습니다.

#### 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응의 필요성

이렇게 채식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인 ‘안티-축산’ 운동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많은 서적과 언론에서 왜곡된 정보들을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정부와 일반국민은 물론 농업계 내부에서도 축산물 및 축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제동 없이 ‘축산물 유해론’이 만연하여 ‘국민건강 기여’라는 축산물의 최대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한 축산물 기피현상은 축산물 소비를 위축시켜 축산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업계와 학계 종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확산되는 안티 축산 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건강에 있어 축산물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국민홍보가 필요하며, 축산물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를 통해, 과학적 고찰 없이 편향되게 보도되는 언론 기사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들의 요구와 선호를 반영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 발전 방향 및 축산인들의 역할

식품시장의 패러다임은 생산자 중심의 ‘양적성장’에서 식품의 안정성과 건강 기능을 중시하는 ‘질적성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안티 축산의 논리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비자가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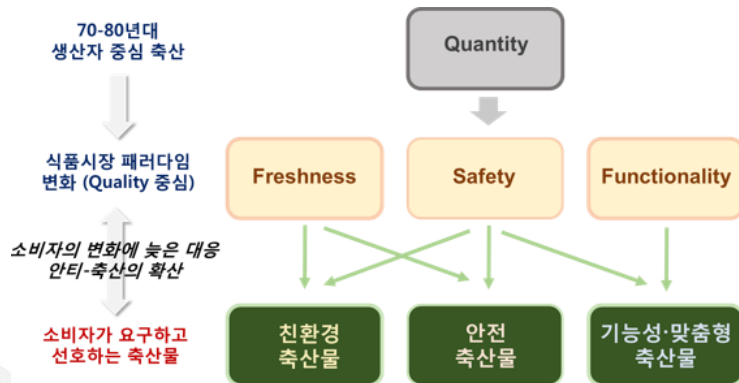
구하고 선호하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은 생태계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가축 본래의 습성을 고려하여 건강하게 사육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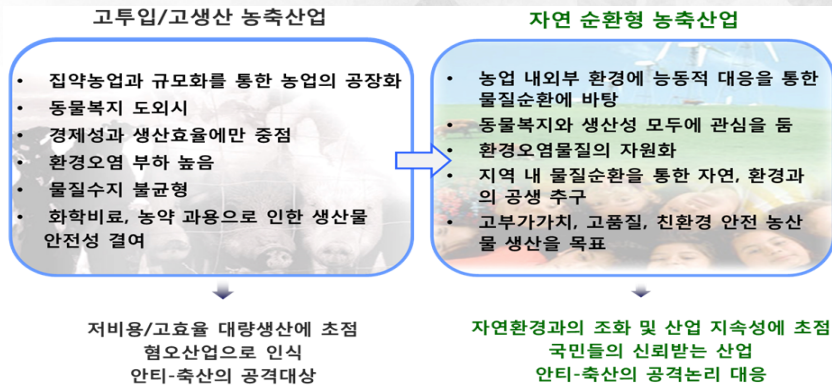
기존의 축산업은 생산효율에만 집중하여 동물복지,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 이는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인식시키는 동시에 안티-축산의 공격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반면 친환경 축산업의 경우 지역 내 물질순환을 통한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산업 지속성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는 산업으로서, 안티-축산의 공격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친환경 축산의 개념을 가축 사육단계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축산물 생산 및 유통 단계에도 확장하여야 하며 친환경 축산은 축산발전 및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그림 2〉 축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림 3〉 기존의 축산업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비교

필수조건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둘째,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축산업에 대한 굳건한 신뢰구축 및 지속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육단계, 도축·가공 단계, 유통단계, 질병 예방·검출 등 각 단계별 HACCP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및 개인 맞춤형 축산식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생활수준 향상, 세계적인 웰빙 트렌드의 확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건강 추구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기능성 식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기능성 강화 축산식품의 개발은 개개인의 건강에 적합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특히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통한 기능성

축산식품 생산은 식품에 대한 기능성 물질의 인위적인 첨가가 아닌 가축의 영양사양 관리, 또는 사육환경 조절을 통해 자연친화적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은 지금까지 소비자와의 신뢰와 유대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곡물시장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 축산 선진국들과의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 AI나 FMD 같은 위협적인 가축질병들의 확산 등 여러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최근 대두된 안티 축산 운동에 의해 국내에서의 기반조차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축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축산물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축산업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